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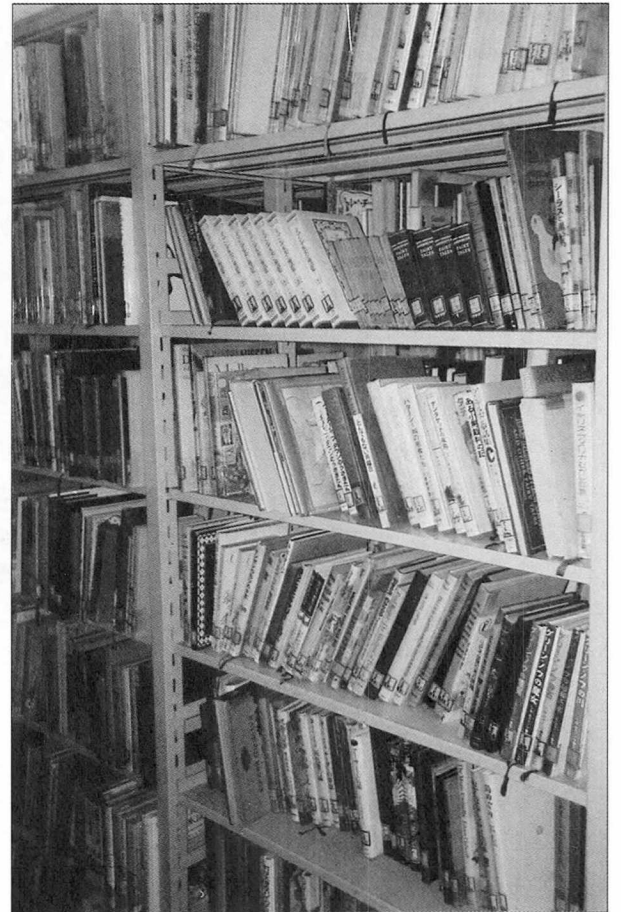
# 어린이의 마음으로 담은 어린이의 세계

## 일본 그림책 출판사 '후쿠잉칸 쇼텐' (福音館書店)을 돌아보고

박찬수

(주)한림출판사 편집과장

그림책 출판사는 어린이의 세계를 잘 알고 어린이의 발상과 마음가짐으로 그려낸 어린이의 세계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기획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진행되는 후쿠잉칸 쇼텐은 그런 출판사의 모범적인 사례로 비쳐졌다.



후쿠잉칸 쇼텐의 잘정리된 창고와 최신 자료로 가득찬 자료실.

유아기의 어린 아이들에게 그림책 읽기는 그들이 성장, 발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유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의 세계를 자신의 마음 속에 영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유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출생 후 직·간접의 체험을 통해서 획득하게 된다. 그림책 속에 있는 글자를 통해서 유아들은 빨리 글을 읽을 줄 알게 되고 글을 빨리 익힐수록 정신세계는 확대된다. 어머니와 함께 그림책을 읽음으로써 유아는 새로운 시각매체에 접하게 되고 어머니와 유아의 감정세계가 서로 잘 통하게 되어 따뜻한 사랑의 교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림책은 유아에게 체험을 풍부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 체험이 풍부하면 상상력도 풍부해진다.

###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은 규모와 시설

유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유아 그림책은 사회·문화·교육적 측면에서 유아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아 그림책을 객관적인 정보나 과학적인 지침 없이 만들어 온 경향이 지배적이다. 일부 그림책을 발행하는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출판사들이 외국 그림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우리 유아들은 그에 따른 문화종속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그림책 출판시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유아 그림책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던 차에, 우연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후쿠잉칸 쇼텐(福音館書店)이라는 그림책 출판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 출판사는 1951년 마쓰이 다다시 회장을 주축으로 월간 그림책과 창작그림책, 번역 그림책 출판을 시작하여 전후 일본그림책 역사를 쌓아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출판사로 알려졌다.

후쿠잉칸 쇼텐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깊다. 한국의 우수한 그림책을 번역 출판하기 위해 오는 2월 23일 마쓰이 회장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쓰이 회장은 국내 유아교육 관계자와 부모 및 출판사 편집인들을 위해 “어린이와 그림책”이라는 주제로 2월 26일 이화여대 경영관 홀에서 강연회도 가질 예정이다. 또 한국의 작가들과 공동으로 한국 도깨비에 관한 전래동화도 제작중일 만큼 후쿠잉칸 쇼텐과 한국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동경 스가모역에서 내려 조금만 올라가면 깨끗한 건물에 아담한 간판을 단 후쿠잉칸 쇼텐이 보인다.

1층에 위치한 본사 창고는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으며, 도서명도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었다. 창고업무는 물론 전산처리도 이루어진다. 창고직원들을 위한 샤워실과 휴게실, 흡연실 등 직원 복지시설도 선진적이다. 차량이 직접 창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효율적인데, 포장작업 또한 분리가 잘되어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도매유통 시스템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좁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책이 제작되면 일단 본사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는 대형 창고로 입고된다. 본사 창고는 항상 출고할 수 있는 적당량의 도서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회사내 누구라도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정비돼 있었다.

영업부 사무실 입구를 들어서면 후쿠잉칸 쇼텐에서 나온 모든 종류의 책이 진열돼 있다. 그림책 출판사답게 그림책 속에 있는 주인공들을 다양한 모양으로 장식해 출판사 방문객에게 간접적인 홍보효과를 주는 것같

았다. 영업부 직원은 30여명이며,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아동도서의 경우 유치원 판매를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동경에만 60군데 정도의 지점을 두고 있다.

신간을 발행하면 일차적으로 해당 유치원에 견본도서를 발송한 후 주문을 받는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 후쿠잉칸 쇼텐을 방문했을 때 4월에 발행할 견본도서를 이미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는 데서 계획성 있는 출판의 면모를 읽을 수 있었다. 재고현황도 즉시 파악이 가능토록 마련되어 있었다.

### 신용 우선의 영업활동

일본 출판사들은 대부분 총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총판은 서점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고 출판사는 총판을 믿고 영업활동을 하는 점이 우리의 현실과 비교되었다.

3층에는 창고 도서를 관리하고 거래처 주문을 받는 관리부와 저작권 사무실이 있었

## 20세기와 21세기의 공백

이중환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 우리에게 20세기와

## 21세기 사이의 공백은

## 너무 크다. 진지하게

## 새 세기에 대응하는

## 어떤 도전도 찾아보기

## 힘들다. 시장이 없다는

## 이유로 변화의 부분에 대한

## 도전을 포기할 때

## 21세기는 심한 낭패감으로

## 맞게 될 것이다.

지난 1월 며칠간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에 숙박할 기회가 있었다. 3층집 찾아보기가 어려운 하노이시를 한국인이 세운 유일한 호텔 18층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은 꽤 낯설은 것이었다.

그러나 객실에서 TV를 켰을 때 이 느낌은 약간 손상을 받았다. TV 채널에는 유로뉴스와 CNN과 NHK가 흐르고 있었다. 유럽호텔들과 다름없는 채널들은 하노이의 현재와 매우 불균형한 것이었으나 서울 TV보다는 더 세계화돼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었다.

최근 몇년새 우리는 세계화를 국가적 캐치 프레이즈로 삼아 왔다. 하지만 20세기가 3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여행도 줄여야 하고 유학도 조정해야 하며 질과 값에 관계없이 국산품을 써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위성방송을 시작할 근거법은 2년간이나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고, 그 사이 일본 위성방송은 한국어방송을 시작하고 있다.

두번째 대통령직을 시작한 클린턴이 첫번째 대통령이 되던 2월에 이런 연설을 했다. "이전의 역사에서 부(富)는 토지로, 금으로, 석유로, 기계설비로 측정되었다. 오늘날 부의 척도는 정보다. 즉 정보의 질과 양, 그리고 정보를 얻고 정보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속도이다."

이를 출발점으로 미국은 전자하부구조 만들기에 몰두했고, 불과 몇년새 새로운 산업

의 기반을 독점적으로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방송위성채널의 대부분도 앞으로 이를 사용할 사람은 미국의 새로운 미디어 제왕 루퍼드 머독이다. 이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긴 서두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20세기와 21세기 사이의 공백이 너무 텅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조금이나마 진지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와 새 세기에 대한 어떤 감각적 대응도 찾아보기 힘들다. 변화를 말하는 출판물도 세계에서는 마치 폭우처럼 쏟아지지만 우리 시장은 이를 출판하지도 읽지도 소화하지도 않고 있다. 80년대로 그 효용이 끝난 엘빈 토플러의 저서만 겨우 97년 오늘에도 팔리고 있다.

독자가 없다면 출판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몇년 간행해 보았지만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노래방과 코미디언들이 점령한 TV프로나 보고 지내다가, 그 탤런트들의 인생론이나 읽고 지내다가는 변화하는 세계를 살기는 어려운 것이다.

나는 최근 도서출판 푸른숲이 간행하고 있는 일본 이와나미 서점의 <21세기 문제군(問題群) 시리즈>를 매우 쓸쓸한 기분으로 통독했다. 일본만 해도 그들의 공백을 매우는 작업에 나서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다른 책들보다 더 탁월한 것도 없고 때로 시야가 아직 열려 있지 않다는 구석을 발견할 수 있으나, 어쨌든 자신의 시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만은 감명적이었다.

우리 출판은 변화의 부분에서 담당해야 할 어떤 도전도 포기하고 있다. 시장이 없다는 이유로 출판이 포기될 때, 우리는 점점 더 TV매체 정도의 수준에서 20세기를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는 아마도 21세기가 되기 전 매우 심각한 낭패감으로 우리 자신이 되돌려받게 될 것이다.

지식과 정보의 수준과 차원을 높이는 일은 여전히 올드미디어의 대표인 출판의 일임을 깨닫는 일과, 그리고 이 일을 함으로써 출판의 권위와 명예가 지속된다는 신념을 다시 세워야만 할 것이다. ◆

다. 저작권 부서는 4-5명이 담당하는데,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자체에서 모든 계약을 관리하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신용을 가장 중요시하는 출판사 이미지 관리방법도 인상적이었다. "로열티보다는 국가간의 신뢰도"를 더 중시한다는 저작권 업무담당자의 설명이다. 같은 나라에서 두 개 출판사가 동시에 도서계약을 신청할 경우, 기왕에 거래하는 회사에게 반드시 문의하고 결정하는 미덕을 보이기도 한다.

5층에는 이 출판사의 핵심부서인 편집부와 자료실이 있다. 편집부는 단 한 권의 책을 만들더라도 상당한 정성을 기울이고 편집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기획, 레이아웃, 편집을 거쳐 반드시 1차 가인쇄를 한 후 본격적인 인쇄에 들어간다. 어떠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편집자세였다.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더라도 완벽한 편집, 책임지는 편집을 한다는 것이 이 출판사의 편집방침인 듯했다.

원고를 입력하는 오퍼레이터는 10명 정도 있다. 디자인실 전용 매킨토시와 편집부 전용 매킨토시가 따로 있어 원색물에 대한 기초작업을 직접 하고 있었으며, 표지디자인은 외주를 주고 있었다. 분야별 업무를 철저히 분담하는데, 해당분야 담당자의 능력을 철저히 인정하는 만큼 책임도 부여하고 있었다.

후쿠잉칸 쇼텐은 유아들을 위한 그림책 전문출판사답게 유아들의 연령에 맞는 다양한 정보기능의 잡지를 8종이나 발행하고 있다. 특히 월간으로 발행하는 잡지 중 독자들의 반응이 좋은 잡지는 다시 양장본 도서로 발행하기도 한다.

신간발행에 쏟는 투자와 정성 만큼 신간이 발행됨과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지에 쏟는 정성도 대단했다. 우리나라 그림책 출판사들이 펴내는 도서목록이나 각종 정보지, 그림책에 대한 설명서 등의 부실한 편집과 비교해 볼 때 배울 점이 많았다. 특히 후쿠잉칸 쇼텐 출판사는 책을 만들어 판매하는 상업적인 면보다는 유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폭넓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느끼게 하는 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확실히 심어주는 데 성공하고 있었다.

편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은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많았고 40세 가 넘어 보이는 중년남성도 여럿 있었다.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삶의 경험이 바탕이 돼야 그림책을 편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 늘 최신정보로 가득찬 자료실

후쿠잉칸 쇼텐의 자료실은 국내 공공도서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외국의 새로운 자료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으며, 이를 항상 전시해 편집에 최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도서관은 국가별 분류까지 완벽하게 이뤄져 있었다. 세계 그림책 시장의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망을 구축하는 일본 출판사의 무서운 힘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후쿠잉칸 쇼텐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그림책 출판사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아들을 위한 그림책을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세계를 잘 알고 어린이의 발상이나 어린이의 기분으로 그려낸 그림책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른이 강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 스스로 "아! 이걸 나의 세계다"라는 친근감으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림책어야 한다. 유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와 그림이 있는 책, 이것이 좋은 그림책과 그렇지 못한 그림책을 구분짓는 최대의 기준이다.

그런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과 편집, 제작과 관리, 영업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후쿠잉칸 쇼텐은 그런 출판사의 모범적인 사례로 비쳐 부러움을 샀다. 우리나라 그림책 출판사도 종합적인 시각에서 좋은 그림책을 안겨줄 수 있는 시설과 마음가짐으로 아낌없는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어린이는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